

전남지역 해수욕장들이 지난달 31일을 끝으로 모두 폐장했다.

지난해보다 20여일 일찍 문을 열고 10여일 늦게 닫아 방문객 수가 전년에 비해 100만여명 증가, 3천억원대 경제 효과를 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해수욕장 방문객·경제효과 믿을 수 있나=전남도는 지난달 25일 올 여름 도내 해수욕장 방문객이 지난해에 비해 100만여명 늘어난 500만여명이며, 경제 파급효과(1인당 6만2천원)도 3천450억원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개장일수가 늘어나 방문객 수가 상대적으로 증가했을 뿐 지난해에 비해 일일 평균 피서객은 오히려 8천여명이 줄었다.

지난해는 62일 개장(6월20일~8월20일)에 388만6천640명이 찾아 하루 평균 방문객은 6만2천687명이었지만 올해는 91일 개장(6월2일~8월31일)에 498만3천806명이 방문, 하루 5만4천767명꼴이었다.

전남 해수욕장 어제 일제히 폐장

바가지 상흔·꿀불건 피서 여전했다

조기개장·늦더위 덕 피서객 100만 늘어 500만명 방문

자릿세 요구·쓰레기 무단투기...도 홈페이지 글 수두룩

늘었지 실질적인 효과는 없었다는 것이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지난해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들의 휴가비를 조사한 결과 한 명당 9만5천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도 자체 피서객 설문조사 등을 통해 분석된 도내 방문객 휴가비는 전국 평균인 6만9천원에 머물고 있어 경제적 효과도 그리 크진 않았다.

◇시설 미비·자릿세 요구 여전 = 김동주

(45·서울시 성북구)씨는 가족과 함께 지난 달 8일 여수 만성리 해수욕장으로 피서를 갔다가 낭패를 봤다.

아이들의 몸에 묻은 바닷물을 생수로 대충 씻어낸 뒤 차를 타고 집인 광주로 돌아야 했던 김씨는 "개장만 빨리 하고 운영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누가 찾아오겠느냐. 다른 지역 친구들에게 부끄러워서 도내 해수욕장을

추천하지도 못하겠다"고 전남도청 홈페이지에 항의 글을 남겼다. 우영민(34·전북 전주)씨도 지난 3일 명사십리 해수욕장을 찾았다가 '자릿세' 때문에 분통을 터뜨렸다.

◇계곡에서 고기 굽고 쓰레기 무단 투기 = 지난 7월 26일 무등산 계곡에서 취사행위를 하던 이모(45·광주시 동구 동명동)씨와 7월 28일 코렐과 버너를 가져와 원효사 계곡에서 삼겹살을 구워먹던 전모(23·광주시 북구 두암동)씨가 무등산 관리사무소 직원

들에게 각각 적발됐다.

무등산 공원관리사무소는 올 여름 산장과 원효사 일대 계곡에서 불법 취사 행위를 하던 8명을 적발, 각각 과태료 10만원씩을 부과했다.

국립공원 지리산 일대에서도 몰래 밥을 하고 고기를 굽던 10명이 적발됐다. 지난 달 4일 화암사 계곡에서 김모(47·경남 창원)씨, 전날에는 피아골 계곡에서 다른 김모(59·경남 하동)씨가 삼겹살을 구워 먹다가 적발됐다.



광주 남구청장 직무정지

폐교에 드라마세트장 건립 직권남용 징역 6월·執猶

직권을 남용해 개발제한구역 내에 불법건축물을 건립한 혐의로 기소된 황일봉(50) 광주 남구청장에게 징역 6월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6 단독 문준섭 판사는 지난달 31일 구청장의 직권을 이용, 건물의 신·증축이 불가능한 개발제한구역 내 폐교에 드라마 세트장을 건립한 혐의(직권남용 관리행사방해 및 개발제한구역의 지장·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황일봉 남구청장에 대해 징역 6월에 징집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황 청장은 이에 따라 현행 지방자치법 제111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행위) 3항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 이날부터 구청장에 대한 직무가 정지돼 문봉주 부구청장이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황 청장은 또 '현직 공무원이 실정법을 위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공직을 박탈한다'는 현행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게 되면 구청장직마저 상실하게 된다.

황 구청장은 지난 2004년 5월 개발제한구역인 광주시 남구 양과동 옛 대촌동 초등학교 폐교시설에 '건물의 신·증축이 불가능하다'는 주무부서의 보고를 받고도 관내 지방문화원인 남구문화원 명의로 '광주드라마·영상센터'를 건립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현배기자 cki@kwangju.co.kr



광주비엔날레 재단 관계자들이 지난달 31일 비엔날레 전시실에서 제2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를 앞두고 첫 번째 해의 참여작가들의 출품작을 살펴보고 있다. 제2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는 오는 10월5일~11월3일까지 열린다.

제2의 의료대란 오나

'성분명 처방' 항의 광주 병의원 집단 휴진

정부의 '성분명(成分名) 처방 시범사업' 시행에 맞서 광주·전남 등 전국 의·약사들이 지난달 31일 오후 집단 휴진에 들어가는 등 의료계와 정부, 정치권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광주시에 따르면 269곳이 집단휴진, 환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광주시 북구 북동 J 정형외과를 찾은 박모(60·광주시 북구 누문동)씨는 "지난주에 넘어져 허리와 어깨 물리치로 받으러 걸어들었는데 허당치고 돌아간다"며 "이들 전에 왔을 때 미리 말했으면 좋았을 건데 왜 말을 안 했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토로

했다. 남구보건소를 찾은 서모(39·광주시 남구 봉선동)씨는 "봉선동 일대 동네 의원은 대부분 휴진했다"면서 "환자를 불모로 휴진을 받 먹듯 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도 용납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각 구 보건소는 이날 환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진료 시간을 오후 8시까지 연장했으며, 1천400여 곳의 약국들도 밤 10시까지 문을 열었다.

하며, 지난달 17일부터 국립의료원이 시범 실시하는 성분명 사업을 반대하는 것은 약을 선택하는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다. 성분명 처방대로 의사가 약을 처방할 때 약의 성분만 정해주고 약사와 환자가 약을 선택하도록 하면, 약을 선택하는 권한을 빼앗기 때문이다.

정부는 그러나 성분명 처방을 하면 상대적으로 값싼 복제 약의 이용이 늘어나 약값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주시 의사회 관계자는 "환자의 상태를 잘 아는 의사가 약을 결정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정부가 이를 강행하면 2000년 같은 전면과업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중행 기자 golee@kwangju.co.kr

BMW 차값은 억! 고객서비스는 혁!

1억3,000만원 신차 소음·엔진꺼져도 리콜 거부 매장앞 1인시위 못하게 집회 신청 한달 선점도

최근 고급 외제차를 구입한 주부가 잇따라 고장으로 리콜을 요구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집회 신청을 하는 등 항의를 계속하고 있다. 주부 이모(47·광주시 남구 봉선동)씨는 지난 7월 9일 큰 맘 먹고 광주시 북구 유동 B자동차영업소에서 시가 1억3천만원 상당의 'BMW 740 i'를 구입했다.

(wiper)에서 소음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씨는 새 차라서 그럴 것이라고 생각, 간단한 애프터서비스를 받은 뒤 차를 몰고 귀가했다. 하지만, 고장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AS를 받은 지 3일 만에 다시 미등(尾燈)이 작동되지 않았고, 주차 브레이크 댄개도 떨어져 나갔다. 주행 중에 시동이 꺼지는 사고도 있었다.

를 요구했지만, 영업소 측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씨는 결국 31일 오전 광주북부경찰서를 찾아 집회 신청을 했다. 영업소 앞에서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1인 시위'라도 벌이려는 생각에서다. 그러나 담당경찰은 "영업소 측이 지난달 25일부터 한 달간 '관측 활동 및 시승식 행사'를 이유로 집회 신고를 먼저 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하는 수 없이 이들의 집회 신청기간이 끝난 이달 22일로 집회 신청을 했다. 영업소 측은 이에 대해 "소비자 보호법상 같은 고장이 4회 이상 반복될 경우에만 리콜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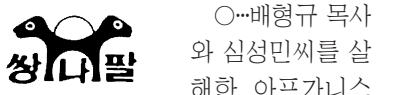
교통사고 처리비용 고민 여대생 자살

교통 사고 처리비용 등으로 고민하던 대학 휴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지난달 30일 오후 3시10분께 광주시 남구 방림동 M아파트 옥상에서 김모(여·22·M대학교 4)씨가 옥상 출입문에 벨트로 목을 매 숨겨있는 것을 아파트 청소부 조모(여·60·광주시 남구 방림동)씨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김씨가 지난 5월 렌터카를 이용하다 사고를 내 2천만원의 부채가 있었고, 아버지의 사업 실패 등으로 고민이 많았다는 유족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김씨가 신변을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자살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철, 탈레반에 기소중지



○배형규 목사와 심성민씨를 살해한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무장세력에게 한국 검찰이 기소중지 처분을 결정.

○수원지법 공판부는 지난달 31일 탈레반 무장세력이 누구고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어 '성명 불상의 살해범'으로 규정하고, 피의자의 소재가 발견될 때까지 수사를 일시 중지(기소중지)하도록 경찰에 지시.

○국내 수사권이 미치지 않는 아프가니스탄에서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미군 등에 의해 살해범이 체포된다면 외교적인 협의를 통해 국내 법정으로 데려와 형법 제6조에 따라 범죄를 물을 수 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

여름 끝났다

3일까지 가을 재촉 비

유난히 무더웠던 올 여름 더위도 8월의 종료와 함께 사실상 끝났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기상청은 "관행한 오호츠크해 기단이 점차 세력을 확장하면서 고온다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수축하고 있다"며 "9월이 시작되면서 여름도 끝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달 28일부터 광주지역에 비가 내리면서 30도를 넘나드는 폭염의 기세가 꺾여 30일 낮 최고기

온이 23.5도·31일 일 최저기온은 19.6도까지 떨어졌다. 앞으로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면서 최저기온이 20도 아래를 밑돌아 열대야(熱帶夜·일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인 경우)도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을 전망이다.

가을을 재촉하는 비는 3일까지 이어졌고, 주말인 1일에는 최고 120mm의 많은 비가 예상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이번 비가 그치고 나면 점차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고, 낮 길어도 하루에 2~3분씩 줄어들겠다"며 "당분간 햇볕은 다소 강하게 내리 쬐겠지만 여름처럼 후텁지근한 더위는 없겠다"고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Weather forecast section for September 1st, including a table of temperatures for various regions and a map of South Korea with weather icons for each region.

이씨는 하는 수 없이 '계약 해지' /이중행 기자 golee@kwangju.co.kr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